

팀명: 안전제일

2024-20125 신호경

2023-21862 이혜민



-32세 남성
-2016년 A병원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 받음
-2023년 B병원에서 왼쪽 손바닥 지방종 절제술 받음

Q: 수술 전에 병원에서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A: 수술 전에 알리지 검사를 했습니다. 팔에 주사를 놓고 항생제 반응을 본다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물 포함한 아무 것도 먹지 않았습니니다. 어디를 어떻게 수술하는지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의서를 작성했고요.

Q: 금식은 얼마나 진행하라고 하던가요?
A: 아침 일찍 수술이라 자정부터 하라고 했어요.
Q: 혹시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들은 기억은 있나요?
A: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Q: 수술실로 가기 직전에 병동 간호사가 물어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A: 팔찌를 보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었고, 수술을 어디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물 말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지랑 알리지 유무를 물어봤어요.
Q: 또 다른 건 없었나요?
A: 보호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Q: 보호자에 대해 어떤 것을 물어봤나요?
A: 수술 후 거동이 일정 시간 불편한데, 보호자가 있는지, 언제 오는지 같은 걸 물어봤습니다.
Q: 더 생각나는 것이 있을까요?
A: 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잠시 고민함. 시간이 경과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Q: 그렇군요. 혹시 수술실에 내려가서도 간호사가 물어봤던 것이 있나요?
A: 수술실에 내려가서도 팔찌로 이름이랑 생년월일, 수술 어디 받는지 확인했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지 물어봤습니다.
Q: 더 생각나는 것이 있을까요?
A: 아...! 반지하고 귀걸이, 목걸이 같은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계속 물으니 좀 더 고민. 손에 반지를 보고 기억난 듯)
Q: 병동에서 물어봤던 것에서는 말씀해주지 않으셨는데, 해당 질문을 수술실에서만 했나요?
A: 아니요. 병동에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Q: 아, 불편하셨겠어요. 안경을 쓰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A: 수술하는 곳이 얼굴이 아닌데 왜 안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더 긴장했고, 불편했어요. (인상을 조금 찌푸리며)
Q: 현재 반지를 끼고 계시는데, 수술할 때 반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A: 빼야 한다고 해서 빼고 갔습니다. 핸드폰도 들고 갈 수 없었어요.
Q: 혹시 가지고 계셨던 소지품을 왜 가져가면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A: 아니요. 그냥 수술 받으러 가야 하니까 다 제거해달라고만 했습니다.

Q: 그렇군요. 수술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준비를 할 때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A: 수술에 대한 긴장 때문에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Q: 많이 긴장 되셨겠어요.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니 병동과 수술실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똑같은 것을 물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왜 계속 같은 것을 물어보는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Q: 같은 내용을 계속 답변 해야 해서 힘드셨군요. 수술 전 준비 사항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체크하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하지 않아도 제가 체크한 것을 보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Q: 수술 전 확인 절차에 관련하여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A: 아, 임플란트나 흔들리는 치아 같은 것도 수술실에서는 물어봤어요. 마취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임플란트 한 치아가 있다고 하니 직접 만져서 문제 없는지 확인해서 당황했습니다.
Q: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A: 네. 그리고 긴장 했어서 그런지 질문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10년차 외과병동 간호사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외과간호와 현장교육전담간호사로 정형외과, 산부인과 병동 신입간호사, 경력간호사 교육 담당
- 외과간호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병동

Q: 수술 전 간호 상태 확인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실텐데,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병원 HIS에 있는 수술 전 간호 상태 확인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보통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수술장에서 병동으로 환자를 이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면 그 수술 전 자가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종이를 활용해서 실제 환자가 이런 여기 저희 간호 상태 확인표에 있는 것처럼 틀니 보청기부터 장신구, 속옷 제거까지 다 했는지를 환자랑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종이를 활용해서 같이 확인하고, 그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전산에 간호사가 입력하고 있습니다. 장신구 제거 외에 이제 동의서 여부라던지 항생제 여부라던지 그런 거는 처방 확인하고, 동의서 받았는지 확인해서 체크하고 있고, 알려지 여부 역시 환자에게 물어봐서 체크합니다.

Q: 자가 체크리스트는 모든 수술 전 환자들이 작성하게 되나요?
 A: 수술 전 자가 체크리스트 그 종이는 외과간호와에서 통일해서 만든 거여서 외과간호과의 병동에서는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며)
 Q: 그러면 환자한테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오라고 하고 한 번 더 간호사랑 환자랑 보면서 진짜로 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A: 네. 보통은 수술 전날에 미리 제공해서 내일 수술장 갈 때 환자분이 스스로 한 번 체크하세요 라고 여기를 드리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미리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까먹고 있다가 이제 담당 간호사가 수술장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혹시 그거 체크해 보셨어요? 했을 때 아 안 했는데요 하면 그때 간호사가 같이 한 번에 체크를 합니다.

Q: 아 그러시군요. 혹시 각 항목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공을 하시나요?
 A: 네. 그 종이에 이미 왜 속옷을 벗어야 하는지, 왜 반지 귀걸이를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다 적혀져 있어서 환자가 혹시 물어보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 보다 보면 알 수 있게끔 일부러 그 표를 만들 때 안에다가 문구를 넣어놨어요. 왜 제거해야 하는지.

Q: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수술 전 간호상태를 확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아, 저는 가발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웃으면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항목에 있는걸 보면서 반지 귀걸이 목걸이 뭐 악세서리 없으시죠? 이렇게 모든 악세서리를 다 나열해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환자가 네 없습니다. 속옷도 다 벗으셨죠? 네 벗었습니다. 대답하고 필요하면 이제 살짝 옷을 건어서 확인도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당연히 다 소동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확인하는데 사실 가발까지는... 가발 아니시죠? 이렇게 안 물어보다 보니까 환자분도 너무 평소에 매일 쓰던 가발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수술장으로 가셨습니다.
 Q: 아 그걸 수술실에서는 어떻게 발견했던가요?
 A: 그걸 수술실 입구 간호사님께서 이제 여기 항목에 딱 시계, 반지, 가발 등 이렇게 써있었다 보니까 그 시계 반지 가발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봤고 그 때 환자가 어 저 가발이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발이... 병동으로 왔어요. (너스레하게 웃으며)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Q: 그럼 혹시 이런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혹시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곤란했던 점이 있을까요?
 A: 어.. 사실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왜 이거 하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는 워낙 많이 물어보셔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잘 설명 드리는 거는 전혀 곤란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데, 이제 어.. 설명을 드리고 알겠다고 하셔놓고 이따가 가기 직전에 벗을게요.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따가 한다고 해서 결국 담당 간호사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담당 간호사가 보통 대부분은 수술장에서 연락이 오면 이송 등록을 해도 적어도 10~15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런 체크리스트도 작성하고, 환자 화장실도 갔다 오게 하고 뭐 가글도 하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이송원님이 오시면 같이 이송카로 모시고 가서 환자 확인도 같이 이송원님이라 하면서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배웅까지 잘하는데, 이게 바빠면 안 돼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무리 바빠도 장신구 제거 확인하고 이제 수술장 갈 겁니다. 말씀드리고 이송카가 볼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간호사들이 다 하는데 다른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이송원님이 알아서 환자를 모시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 분명히 환자분은 저와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냥 속옷도 다 안 벗고, 장신구도 가지고 수술장 입구로 가면 이제 수술장 입구에서는 다시 전화가 오니까 어 마치 내가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은 상황이 생기버리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Q: 아 정말 곤란하시겠어요. 그러면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표를 작성하고 수술실에서 다르다고 연락이 온 경우가 종종 있으시겠어요?
 A: 그쵸. 그래도 이런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여러 번 확인하고 가능하면 환자 이송원님이 오셨을 때 담당 간호사가 꼭 같이 가서 한 번 더 속옷 진짜 벗으셨죠? 뭐 없죠? 막 이러면서 꼭 한 번씩 더 확인하게 그렇게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일할 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병동에서 이런 체크리스트까지 활용하고 계시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이걸 만들어서 활용했을 때 조금 더 누락이 줄어들었나요?
 A: 네. 누락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물론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제가 병동에서 일할 때도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체크할게 하나 더 생겼다.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실제로 병동이 그 수술장에서 연락 오는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Q: 수술 전 간호 상태 확인 중 협조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의 특성이 있나요?
 A: 아무래도 연령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Q: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다면 자가 체크나 이런 것들도 활용되기가 어렵지 않나요?
 A: 사실 이제 완전히 소동이 안 되는 환자들은 보호자가 없는 병동으로 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보호자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혹은 청력이 조금 저하해서 소동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방법밖에는 아직은 없지요.



-33세 남성

-2025.2.27 A병원에서 편도절제술 받음

Q. 수술 전 체크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A: 12시 자정부터 금식하는 것, 렌즈 안 끼는 것, 귀걸이 목걸이 빼는 것, 수술동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소지품은 가지고 왔다가 사물함에 보관하였습니다.

Q. 수술 받기 전에 설명을 해주고 병원을 오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에 대한 경험과, 감정, 생각에 대해 나눠주세요.

A: 병원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어플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더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다가 물어봤습니다. 입원을 애매하게 이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져 있길래 몇 일간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병원이 전화를 잘 안받으니까 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Q&A를 했습니다. 위급한 건 아니니까 이제 나중에 연락 받아도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해서 입원은 몇 일간 해야 되냐 그래서 대략 11박 2일에서 2박 3일이다, 이렇게 여기가 답변을 받았어요.

Q. 수술 준비 전 설명에 대한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떠칠 전 검사할 때나 아니면 수술 일정 잡힐 때, 뭐 그다음에 수술 하기 전날 문자도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술이 바로 다음 날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이 몇 주 뒤에 하다보니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Q.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었죠?

A: 전날 문자가 효과적이었습니다. 똑같은 걸 물어봐도 괜찮았습니다.

Q. 만약에 만약 금식을 못 지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것 같은데요? 누락됐었다고 생각하면.

A: 금식이 못 지켰어도 원래 수술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일정을 또 다시 잡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Q. 금식을 못 지켰어도 수술을 받았을 것 같다고요?

A: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럼 안되겠지만, 근데 크게 약간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야 되는 시간부터 금식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Q. 수술 시간이 몇 시 였죠?

A: 11시, 아침 9시에 입원해서 11시 반인가 그때 지금 12시에 들어간 거 같아요 12시. 나는 그래도 그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건데 오후에 뒤늦게 와서 입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좀 불편하다 생각했어. 하루 이틀을 자야 되고 거기다 링겔도 꽂아 넣는게 불편하니까.

Q. 수술을 하기 전에 간호사가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는거 말해주세요.

A: 수술하기 전에 왼손에다가 링겔 꽂아 준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실비 보험 같은 거 뭐 다 받아갈 건지. 그래서 진단서나 이런 거 다 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여가지고. 간호사들은 제 팔꿈치에 링겔 막 꽂아주는데 피들을 못 찾아서 꽂고 다시 뺐어요.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약간 역류가 잘 되가 잘되서. 그래서 아이씨 나만 그런가 해서 옆에 아저씨들도 다 봤는데 다 손목에 손등에 했더라고요. 거는 간호사의 역량의 차이지. 근데 차마 못 물어봤는데, 그게 그게 궁금해서. 왜 여기 꽂았다 뺐는 건지 왜 손등에 맞은 건지? 나 도라에몽 손도 아는데 나 체지방 그렇게 안 높는데 왜 못 찌른 건지 약간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게 제일 생각났다. 잘 못 찌른 거. 계속 때렸다고 나를 이렇게 손 여기를 계속 때렸다고 수술 전에 뭐 이것저것 설명해 줬는데 다 기억 안 나고 때린 거밖에 기억안나요.

Q. 설명 해준 것이 생각이 안나는게 그 설명해 준 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었던 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A: 어 설명해 준 거는 그냥 이제 그 종이에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해준 거라 그 하면서 다시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술 전 중 수술 당일 수술 이후 이렇게 내용이 써져 있었는데. 수술 전에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긴 했어요.

Q. 왜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A: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했다. 뭐 별 게 없었다. 그냥 수술 동에서 이제 받는거랑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항생제 반응 검사랑. 링겔 이렇게 맞는거, 저는 수술 전날에 입원한 게 아니고 당일 날 입원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조만간 수술을 받을 거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였어요.

Q.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요?

A: 금식 상태 유지하고 혈액 맥박 후 측정하는 거고 그런 거밖에 안 써져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수술 전에는 그러니까 별 게 없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은 이제 수술 후인데 수술후는 이제 수술 후에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판단을 했어요. 음 해봐야 알지 이런느낌?

Q. 수술에 대해 수술전에 더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

A: 편도에 계속 염증 생겨서 편도가 많이 큰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의사가 알 수가 없다 그랬다. 거랑 목소리를 잃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명감이 더 커져서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게 된다든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봤었는데 궁금하긴 했어요. 음 그런 거에 대한 딱히 여기는 안해주셔서 약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를 안 해주셔서 그런 거는 그 약간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 편도가 1차 면역 기관인데 요거를 일단 떼내는 것 때문에 일단 수술을 안 한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많이 아팠어 가지고 이제 한건데. 지금은 뭐 만족하는데 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거 사람들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런 거 약간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 그거 보편은 뭐 부작용 거의 없다고 그렇게만 여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했어요.

Q. 그럼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많이 불안했었나요?

A: 그때 이제 막 음 크게 불안했던 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긴장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 내 몸을 뭔가 짚는 게 아니고, 그냥 입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라서. 진신마취라는 게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내 스스로 힘을 못 쐬다.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불안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불안을 일으키거나 한 건 없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내 몸에 있는 걸 떼내는 거니까. 뭔가 좀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알고 싶었는데. 그 자세히는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자세히는 여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약간 편도 결석은 많고 크고 막 그런거

Q. 간호사가 한테도 못 물어보고 그랬나요?

A: 네, 뭐 되게 거긴 좀 되게 바빠게 움직여서.



- 30세 여성
- 만 6년차 수술실 간호사
- 현재 삼성서울병원 수술실간호사로 심장외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여러 수술 경험

Q. 환자의 수술 전 간호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알고자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수술 전 간호 상태 어떤것을 확인하나요?

A: 환자의 금식 시간과 피부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가져오신 소지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마취동의서나 수술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Q. 병동과 수술실에서 환자의 상태가 달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A: 병동에서는 환자 수술 그 피부가 괜찮다고 했는데 수술장에 내려와 보니 피부에 문제가 있던 환자가 종종 있었습니다.

Q.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수술실에서의 욕창으로 발생한 욕창의 위치가 수술실이라고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병동 담당 간호사한테 알려서 전산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부 외에도 이 수술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환자 갖고 와야 할 물품 DVT 커프 같은 걸 안 갖고 온 경우에도 병동에 요청을 해서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Q. 그때 누락된 거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A: 병동에서 바빠서 누락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그 해당 수술을 잘 모르는 간호사가 왔을 때 이것을 거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수술전 체크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A: 환자분이 가발을 쓰고 오셨는데 가발을 안 착용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마취를 하고 보니 가발을 착용하고 오신 분도 있었고. 틀니를 하고 오셨는데 틀니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신지 않아서 수술장에서 잠깐 보관한 다음에 다시 착용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Q. 왜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 안 착용하고 온 환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음 그런 환자가 있으면 이제 어쨌든 인계해야 할 물품과 인계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기억이나 납니다. 가발은 다시 수술 중에는 벗고 다시 착용을 저희가 최대한 예전 상태로 돌려서 시킨 다음에 회복실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Q. 환자가 그 가발을 착용하고 오지 않았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음 그때는 저희한테 가발을 착용을 안 하고 왔다고 가발이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간호사가 머리를 만지던 중에 가발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Q. 그러면은 이렇게 누락이 되는 안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A: 일단 병동 간호사도 이제 해당 수술마다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수술장을 내리기 전에도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고요 음 환자 본인도 수술을 받기 전에 자신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그렇다면 환자가 만약에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술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 어떤 좋은 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A: 예를 들어서 8시에 환자가 입실하는 바쁜 시간대에는 병동에 전화 할 일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음 뭐 좀 그런 전화를 통해서 컴플레인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니까 수술실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들의 burden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혹시 또 수술 전 준비 이런 거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 수술 전 준비 금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더 있는데 수술 전에 이제 8시간 금식을 보통 하기 때문에 첫 환자는 밤 12시부터 물 포함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후 5시라든지 8시 8시나 뭐 이렇게 오후 늦게 하는 환자한테도 밤 12시에 금식을 굳이 시킬 필요가 있는지, 환자는 거의 하루 내내 물도 못 먹은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는건데 만약에 이런 대처 다른 방안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대체품들이 있다면 좀 더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비할 때 burn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발 종류도 다 다양하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하는 무언가도 있으면 좋겠다. 가발 같은 건 진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틀니도 안에 쇠가 있으면 진짜 burn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안에 틀니를 낀 할아버지 할머니도 진짜 꽤 많고. 가끔 돈 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돈 개수를 보호자한테 일단 주는데 보호자한테 못 주면 음, 일단 돈에 그 개수를 다 세 뭐 백 원짜리 500원짜리 얼마 갖고 왔는지 음 그래서 회복실에 있는 게 만약 금식이 막 그렇게 크지 않으면, 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막 예를 들어서 지폐가 너무 많다. 막 이러면 그냥 다시 회복실 그 보호자 줘요. 그거랑 뭐 자기는 뭐 부적이 있어서 부적을 떼고 수술하기 싫다. 뭐 이런 환자도 있었고? 그리고 가끔 뭐 먹줄 거 만들어와가지고 수술실 간호사들처럼 진료라 나눠먹으라고 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어 두건 그 브레스트 캔서 환자가 두건 쓰고 오는 거 그니까. 우리 병원에 루틴인데 좀 분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나는 본관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러다 이제 모자 눌린 데 욕창 생기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다. 만약에 브레스트가 금방 끝나는 수술이긴 하지만, 만약에 금방 안 끝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면 네 그러면은 그 자국대로 머리 돌리는 거니까 음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 머리 돌린 거 어 또 피에스 쪽인하면은 수술이 길어지니까 그칠 수도 있어. 그리고 가끔 브레스트 우리가 임플란트 넣으면 임플란트 카드 같이 보내주잖아 어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인계하면서 우리가 뭐 이브닝 바퀴면 뭐 우리가 나는 그냥 걸어 놓거든 물데에다가 근데 이제 이브닝한테 이거랑 인계가 안되면은 막 그 임플란트 카드 어따 봤냐 막 이렇게 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쪽조만 것들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돈 갖고 온 사람 뭐 가발 쓰고 온 사람 렌즈 끼고 온 사람 틀니 끼고 온 사람 꽤 많고. 아 그리고 가끔 반지나 귀걸이? 그런 건 보호자 인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음 근데 젤네일은 많이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네일 같은 건. 그니까 어디서 많이 펜 흔적이 보였어. 이제 그거를 좀 알고 있나봐요 환자들. 근데 자기가 약간 데일리로 하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가발 맨날 쓰고 있지. 틀니 맨날 끼고 있지 약간 이러니까 약간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인사이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의안 같은 거는 아예 계속 끼고 있으니까 또 보청기를 어떤 분은 자기가 끼고 들어가고 싶다고 자기가 안 틀리는 게 너무 싫다고. 근데 보청기가 엄청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책임질 거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말했으니까 음, 막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 수술이 금방 끝나면 상관없는데 막 늘어지면은 이제 인계 주면서든 까먹을 수도 있고 이러다가 막 환자 옮기면서든 떨어뜨리다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뭐 배사작 뭐 이렇게 되면은 뺏기지면은 이거 누가 뺏겼냐 막 이런. 사실 보호자도 더블 체크하는 게 좋는데 환자 본인이 제일 먼저 이것을 빼야 제거를 한 다음에 수술장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32세 남성

-만 6년차 수술실 간호사

-현재 삼성서울병원 수술실간호사로 폐식도위과, 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여러 수술 경험

Q. 수술 전 간호 상태 어떤 것을 확인하나요?

A: 수술 전 간호상태는 이제 환자 피부 상태와 부위표시 항생제 동의서 등 확인합니다.

Q. 혹시 병동과 수술실에서 환자의 수술 전 간호 상태가 달랐던 적이 있는지?

A: 네 부위 표시를 해야 되는 수술인데 하지 않고 온다거나 그 수술 전 항생제를 AST를 해당 해야 되는 품목을 이제 했다고 체크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Q. 그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A: 그때 이제 병동에 전화해서 의사소통 한 다음에. 전처치표를 고치거나 수정을 하면서 해결했다.

Q. 왜 그런 일이 생긴 거 같으세요?

A: 개인의 지식의 부족입니다. 간호사의 깜박했을 거 같다.

Q.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A: 그니까 아 이런 이 보통 좌우가 있는 거는 확실한 좌우가 있는 장기는 확실한 부위 표시 대상인데 이것을 부위표시 대상이 아닌 수준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냥 어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Q. 환자는 이걸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A: 일단 모르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단니까. 우리가 부위표시를 혼자서 그냥 받는 거지. 뭐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Q. 수술전 체크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A: 환자가 가발을 쓰신 분이었는데 가발을 이제 가발을 먹고 오셨는데 가발 고정하는 거를 피부에 직접 본드 같은 걸 붙여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런데 그게 쇠가 아니라서 전극이 안 통한데요. 티타늄 재질이라서 네 그래서 일단은 수술실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Q.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체크하는 것이 좋을지.

A: 병동도 확인을 안 한 거니까. 근데 그게 막 그 병동도 확인을 안 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확인을 했다 치더라도 인계사항을 좀 적어서 줘야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탈부착이 안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좀 코멘트라도 써 주어야 하는데. 아예 그냥 뭐. 근데 그게 내려오니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똑딱이 같이 되어있는 그런 건데 그 똑딱이 그 벨트로 똑딱이 붙어 있는 벨크로로 라인이 피부에 차게 본드로 붙여져 있었어요. 대머리에. 전극이 안 통해서 어쨌든 그냥 들어갔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Q. 혹시 환자가 스스로 자가 체크를 통해 체크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A: 그거 아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번 더 그래도 아 이거는 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무얼 해 임플란트를 뭐 박은 경우도 있고. 음 아까 가발 같은 경우도 막 이것도 뭔가 그래도 쇠 재질과 비슷한 거니까. 한 번 더 간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Say

Feel



공감지도: Say

Say

음식은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수술 전에 알려지 검사를 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수술하는지 설명도 해줬어요.

아침 일찍 수술이라 자정부터 하라고 했어요.

보호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자정부터 음식, 렌즈 안 끼기, 귀걸이 목걸이 빼기, 수술동의서 받은 것입니다. 개인소지품은 가지고 왔다가 사물함에 보관하였습니다.

왜 계속 같은 것을 물어보는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설명은 그냥 종이에 적힌 그대로였고, 수술 전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못 지켰어도 원래 수술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다.

안경, 반지, 핸드폰 등 소지품을 다 제거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반지, 귀걸이, 목걸이 같은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름과 생년월일, 수술 부위, 음식 여부, 알려지 유무를 물어봤어요.

임플란트 치아에 대해 직접 만져서 문제없는지 확인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수술 전날 문자로 상기시켜 주는 게 효과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안했으나, 내 몸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는 거라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 전 간호 상태 확인표를 작성하기 위해 환자와 함께 체크해 보는 종이를 활용합니다.

환자에게 '스스로 한 번 체크하세요'라고 안내하고, 필요 시 간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항상 주머니에 뭐 없으시죠? 한 번 손 넣어보세요'라고 물어본다.

종이에 이미 왜 속옷을 벗어야 하는지, 왜 반지나 귀걸이를 빼야 하는지 등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반지 귀걸이 목걸이 없으시죠? 가발 아니시죠?'라고 물어본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확인해보게 해서, 간호사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링겔 곳은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꿈치에 링겔 꽂았다가 다시 빼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편도제거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음식 시간, 피부 상태, 소지품(가발, 흉니, 보청기 등)을 확인합니다. 마취통의서나 수술 동의서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환자 간호상태는 피부 상태, 부위표시, 항생제 동의서 등을 확인합니다.

누락되는 것은 개인의 지식 부족, 간호사의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오류가 줄어들고, 수술장에서 연락 오는 건수도 감소하였습니다.

계속 말하지 않아도 제가 체크한 것을 보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병동에서는 피부 상태가 괜찮다고 했는데, 수술실에 내려와 보니 문제가 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표시를 해야 하는 수술인데, 부위표시를 하지 않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 전 항생제 투여 체크를 했다고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병동에서도 확인하지 않았고, 인계사항에 대한 코멘트도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좌우가 명확한 장기는 부위표시 대상인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어이없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병동에 전화해서 의사소통한 후 전처치표를 수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누락된 사항(예: 수술표시, DVT 커프, 가발, 흉니 등)이 발견되면 병동에 즉시 요청 드립니다.

환자가 미리 준비된 상태인지, 혹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가발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착용한 경우도 있고, 흉니의 경우 보조자와의 협의를 거쳐 임시 보관 후 재착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준비를 누락 시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예: 흉, 임플란트 카드, 브레스트 캔서 관련 물품 등)이 있다.

환자가 가발을 착용하는 분이신데, 가발 고정을 위해 피부에 본드 같은 것이 최가 아니라 티타늄이라 다량히 수술실에 들어간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가발까지는.. 가발 아니시죠 이렇게 안 물어보다 보니까 환자분도 너무 평소에 매일 쓰면 가발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수술장으로 가셨고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체크하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지도: Do



Do

공감지도: Think

Think

수술 전에 진행된
여러 절차(알리지
검사, 금식, 동의서
작성 등)를 하라고
하니 해야한다
인식

편도 제거 후
나타날 부작용이나
변화에 대해 추가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 전 설명이
단순히 종이에 적힌
내용 그대로였기에,
깊이 있는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병동과 수술실 간의
소통 부족이나 정보
전달 누락으로 인해
환자 준비 사항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실수는
개인의 지식
부족과 간호사의
감박임에서
비롯된 것 같다.

좌우가 명확한
장기는 반드시
부위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심각하다.

환자들이 '나중에
제거할게요'라고
하여 결국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

여러 번 설명과
상기 메시지
덕분에 수술 전
준비사항은 충분히
안내받았다고
생각했다

링겔 삽입 부위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간호사의
역량 차이가
느껴졌다.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왜
제거해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왜 계속 같은
것을
 물어보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음

금식이나 준비사항을
못 지켰더라도, 원래
수술 자체가
연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발 같은 경우도
재질에 따라 수술 시
전극 영향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준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반복 점검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반복 확인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작은 물품이나 환자
개인 소지품의
분실이 추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과
인계가 필수적이다.

수술실과 병동 양측에서
환자 준비 상태를 두 번
이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나 시스템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미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

체크리스트
등의 확인
방법이 있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

환자들이 스스로 준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금식 시간
조정 등 환자 맞춤형
대안이 있다면 만족도와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다.

공감지도: Feel

안경을 쓰지 못하게 되어 “더 긴장”하고 “불편함”을 느낌

임플란트 치아를 직접 만져 확인당하면서 당황함

수술 전 긴장감과 불안감

수술 전 준비 과정에 대해 별다른 긴장감은 없었으나, 약간의 불안과 아쉬움이 있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는 부정적 감정이 드는 것으로 표현

수술 당일 입원 및 준비 절차에서 약간의 혼란이나 불편함을 느꼈음

전신마취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수술 전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

링겔 꽂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자괴감을 경험

환자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재확인할 때 느끼는 불편함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필수 확인 절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감

개인적인 지식 부족이나 깜박함으로 인한 불편함

수술 전 준비 과정 중 환자의 평소 습관(예, 가발 착용 등) 때문에 누락이 발생하여 느끼는 당혹감

환자의 준비 미흡이나 누락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간호사 간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스트레스

누락이나 실수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감정

환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반복적인 확인 작업과 여러번 체크해야하는 절차에 대한 부담감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상황에 대한 불편함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난 점에 대해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는 다짐

Feel

팀 '안전제일'

신효경(2024-20125)
간호정보학 석사 전공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6년 근무

관심영역: 환자안전, 교육, 인공지능

이혜민(2023-21862)
간호관리학 석박통합 전공
서울대학교병원 수술실 10년 근무

관심영역: 환자안전, 간호사 교육체계

풀고자하는 문제 영역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표>

간호단위(병동,중환자실 간호사)	항목	수술부단위(수술실 간호사)
질문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나 예/아니오/해당없음/모름 으로 답변 비고 작성 가능	수술명 확인, 환자 확인	질문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나 예/아니오/해당없음/모름 으로 답변 비고 작성 가능
	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 작성 여부	
	약물 알레르기, 의료용 테이프 알레르기	
	(특정 시점)부터 금식 여부	
	틀니,보청기,안경,의안,콘택트렌즈 제거 장신구(시계,반지,가발 등) 및 화장 제거 환의만 입힌다(속옷 제거)	
	이식형 보조기 유무	
	수술부위표지	
	환자 피부상태(명, 상처)	
	예방적 항생제, AST 시행부위 확인	
	수술부위 피부준비, 투약, 지참 물품 등	해당 없음
	배뇨 확인	

-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표는 수술 직전 **환자에게 간호사가**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
- 수술 중/수술 후 환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로 **정확한 확인 필요하나, 누락이 생겨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 시 누락 발생을 줄여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필요 발견하기 방법론 - 인터뷰 참가자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

간호사는

수술 전 간호상태확인을 통한 정확한 확인으로 누락발생을 줄여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싶은 니즈를 가진 전문가
환자는

수술 전 간호상태확인을 통한 정확한 확인으로 누락발생을 줄여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싶은 니즈를 가진 대상자

병동간호사 1명, 수술실간호사 2명, 수술 받았던 환자 2명, **총 5명**을 인터뷰

필요 발견하기 방법론 - 인터뷰 참가자

	자기소개	인터뷰 방법	인터뷰 장소	인터뷰 시간	모집방법
참가자1	32세 남성 2016년 A병원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 받음 2023년 B병원에서 왼쪽 손바닥 지방종 절제술 받음	면담	카페	10분	대면으로 문의
참가자2	10년차 외과병동 간호사 서울대학교병원 외과간호와 현장교육전담간호사로 정형외과, 산부인과 병동의 신입 간호사와 경력간호사 교육 담당	면담	병원 내 회의실	20분	이메일로 문의
참가자3	33세 남성 2025.2.27 A병원에서 편도절제술 받음	전화	차 안	20분	카카오톡으로 문의
참가자4	30세 여성 삼성서울병원 만 6년차 수술실간호사 심장외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여러 수술 경험	전화	집	20분	대면으로 문의
참가자5	32세 남성 삼성서울병원 만 6년차 수술실간호사 폐식도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여러 수술 경험	면담	카페	7분	대면으로 문의

필요 발견하기 방법론 - 인터뷰 질문

	환자	간호사
Build ra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대상자에게 자기소개 후 목적 설명: 환자가 경험한 수술 전 준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수술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확인했는지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조사, 어떤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대상자에게 자기소개 후 목적 설명: 환자의 수술 전 간호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수술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확인했는지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조사,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Seek st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기억나는게 있나요? • 수술실로 가기 직전에 병동 간호사가 물어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 수술실에 가셔도 간호사가 물어봤던 것이 있나요? • 수술 전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 수술 전 준비 사항에 대해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나요? • 수술 전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곤란했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 왜 이런 것을 확인하는지 설명을 하시나요? • 확인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div> <div><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실에서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연락이 온 경우가 있나요? 그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div> <div><수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동에서 확인한 것과 직접 확인한 내용이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그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div> </div>
Talk fee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준비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 병동과 수술실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똑같은 것을 물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상태가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표와 다름을 발견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의 누락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터뷰 결과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 누락의 원인

환자

- **환자가 수술 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금식을 못 지켰어도 원래 수술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일정을 또 다시 잡아야 되니? 그게 너무 힘드니까."(참가자3)

"안경을 쓰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수술하는 곳이 얼굴이 아닌데 왜 안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더 긴장했고, 불편했어요."(참가자1)

"왜 계속 같은 것을 물어보는건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참가자1)

- **제거해야하는 항목이 환자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들이라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분도 너무 평소에 매일 쓰던 가발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수술장으로 가셨고"(참가자2)

"자기가 약간 데일리로 하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가발 맨날 쓰고 있지. 틀니 맨날 끼고 있지 약간 이러니까 약간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인사이트가 좀 없는 것 같아요."(참가자4)

간호사

- **간호사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물론 아무리 바빠도 장신구 제거 확인하고 이제 수술장 갈 겁니다 말씀드리고 이송카가 올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간호사들이 다 하는데 **다른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이송원님이 알아서 환자를 모시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명히 환자분은 저와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냥 속옷도 안 벗고 장신구도 가지고 수술장 입구로 가면 이제 수술장 입구에서는 다시 전화가 오니까 어 마치 내가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은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참가자2)

"**간호사가 깜빡했을 거 같습니다.**"(참가자5)

"**병동에서 바빠서 누락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그 **해당 수술을 잘 모르는 간호사가 왔을 때 이거를 거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참가자4)

인터뷰 결과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가 누락되지 않으려면?

•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왜 수술 전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 종이에 이미 왜 속옷을 벗어야 하는지, 왜 반지 귀걸이를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다 적혀져 있어서 환자가 혹시 물어보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도 왜 이것 벗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간호사들도 뭐 여러 번 보다 보면 알 수 있게끔 일부러 그 표를 만들 때 안에다가 문구를 넣어놨어요. 왜 제거해야 하는지”(참가자2)

“뭐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어도 뭐 환자 보호자가 제대로 수행해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담당 간호사가 신경을 안 써서 또 뭐 장신구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긴 할 것 같긴 한데..”(참가자2)

“보청기를 어떤 분은 자기가 끼고 들어가고 싶다고 자기가 안 들리는 게 너무 싫다고. 근데 보청기가 엄청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말했으니까 응, 막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 수술이 금방 끝나면 상관없는데 막 늘어지면은 이제 인계 주면서도 까먹을 수도 있고 이러다가 막 환자 옮기면서도 떨어뜨리다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참가자4)

인터뷰 결과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가 누락되지 않으려면?

• **환자, 간호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체크하는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하지 않아도 제가 체크한 것을 보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참가자1)

“일단 병동 간호사도 이제 해당 수술마다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수술장을 내리기 전에도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고요. **환자 본인도 수술을 받기 전에 자신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참가자4)”

“어쨌든 이렇게 조금 어떤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환자 스스로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조금 더 오류가 감소할 테니까.**”(참가자2)

“실제 제가 병동에서 일할 때도 **종이로 된 자가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체크할 게 하나 더 생겼다.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실제로 병동이 그 수술장에서 연락 오는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간호사 선생님이 좋아하셨습니다.”(참가자2)

Say

환자가 확인받은 내용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환자가 확인받은 내용

설명의 중요성

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키려고 노력

수술 전 환자의 경험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수술 전날
 문자로 상기시켜
 주는 게
 효과적이었다고
 느낍니다.

락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오류가 줄어들고, 수술장에서 연락 오는 건수도 감소하였습니다.

누락 발생 원인

누락되는 것은
개인의 지식 부족,
간호사의 깜박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상태인지,
혹은 스스로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낫다.

것 같은데,
체크하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Do

간호사가 확인한 내용

수술 전 환자에게 직접 가서 HIS에 기록될 간호 상태 확인표(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항목(불니, 보정기, 장신구, 속옷 등)을 확인	미리 수술 전날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확인하도록 안내
--	---

병동에서

전달받은 정보와
실제 수술실 도착
후 환자 상태를
재확인

환자의 피부

상태, 부위표시,
항생제 동의서
등 수술 전 필수
사항은 한이

가발, 틀니, 보청기

능 환자의 개인
소지품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재확인 및 인계
작업 진행

수술실에서 발견되는

수술 표시 누락,
필요한 물품 미비
등)을 즉시 병동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누락 대처 경험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항목들을
기록하고, 부위표시
누락이나 항생제 투여
미실시 등의 문제 발생
시 병동과 의사소통하여
문제 해결

링겔 삽입 시,
간호사의 시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

병원 제공
카카오톡
러스친구 어플을
통해 궁금한 점
의 및 단병 확인

- 환자는 수술 전 불안 및 긴장이 높고, 수술 전 준비를 왜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문제 없이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
- 환자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답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질문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 간호사는 최대한 수술 전 간호상태를 잘 확인하여 환자가 별다른 문제 없이 수술 받기를 원한다.
- 간호사는 수술 전 준비가 누락되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과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를 원한다.

Think

설명 부족

수술 전에 진행될 여러 절차(알리지 않음, 금식, 동의서 작성 등)를 미리 알고 하나 하나 하라 한다 인식

편도 제거 후 나타날 부작용이나 변화에 대해 추가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 전 설명이 단순히 좋이에 적힌 내용 그대로였기에, 깊이 있는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왜 계속 같은 것을 물어보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음

금식이나 준비사항을 못 지켰더라도, 원래 수술 자체가 연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락 발생 원인

병동과 수술실 간의 소통 부족이나 정보 전달 누락으로 인해 환자 준비 사항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실수는 개인의 지식 부족과 간호사의 감박임에서 비롯된 것 같다.

좌우가 명확한 장기는 반드시 부위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심각하다.

환자들이 나중에 제거할거요라고 하여 결국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

여러 번 설명과 상기 메시지 덕분에 수술 전 준비사항은 충분히 안내받았다고 생각했다

링겔 삽입 부위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간호사의 역량 차이가 느껴졌다.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제거해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필요

수술실과 병동 안에서 환자 준비 상태를 두 번 이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나 시스템이 보완이 요구된다.

이미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

체크리스트 등의 확인 방법이 있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

환자들이 스스로 준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금식 시간 조정 등 환자 맞춤형 대안이 있다면 만족도와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다.

수술과 관련된 불안감

수술 전 긴장감과 불안감

수술 전 준비 과정에 대해 별다른 긴장감은 없었으나, 약간의 불안과 아쉬움이 있었다.

안경을 쓰지 못하게 되어 "더 긴장"하고 "불편함"을 느낌

임플란트 치아를 직접 만져 확인당하면서 당황함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으로 환자가 느낀 부정적 감정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는 부정적 감정이 드는 것으로 표현

수술 당일 입원 및 준비 절차에서 약간의 혼란이나 불편함을 느꼈음

전신마취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수술 전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

링겔 꽂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자괴감을 경험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으로 간호사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

환자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재확인할 때 느끼는 불편함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필수 확인 절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감

환자의 준비 미흡이나 누락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간호사 간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스트레스

반복적인 확인 작업과 여러번 체크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부담감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상황에 대한 불편함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 누락으로 간호사가 느끼는 감정

개인적인 지식 부족이나 감박함으로 인한 불편함

수술 전 준비 과정 중 환자의 평소 습관(예, 가발 착용 등) 때문에 누락이 발생하여 느끼는 당혹감

누락이나 실수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감정

환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될 때, 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난 점에 대해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는 다짐

Feel

- 환자는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수술 전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원한다.
- 환자는 자신이 궁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명을 받기를 원한다.
- 수술 전 준비 누락 없이 안전한 수술을 받기 위해 환자와 간호사 모두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원한다.
- 간호사는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 시 좀 더 적극적인 환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분석

- 환자는 수술 전 불안 및 긴장이 높고, 수술 전 준비를 왜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문제 없이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
- 환자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답**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질문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 간호사는 최대한 수술 전 간호상태를 잘 확인하여 환자가 **별다른 문제 없이** 수술 받기를 원한다.
- 간호사는 수술 전 준비가 누락되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과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를 원한다.
- 환자는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수술 전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원한다.
- 환자는 자신이 궁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명을 받기**를 원한다.
- 수술 전 준비 누락 없이 안전한 수술을 받기 위해 환자와 간호사 모두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원한다.
- 간호사는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 시 좀 더 **적극적인 환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1. 환자는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성을 주의깊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사는 환자에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양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요약

<문제 영역> 수술 전 간호상태 확인 시 누락 발생을 줄여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필요 발견하기>

병동간호사 1명, 수술실간호사 2명, 수술 받았던 환자 2명, 총 5명을 인터뷰

<인터뷰 결과>

수술 전 간호상태 누락의 원인

환자가 수술 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제거해야하는 항목이 환자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들이라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호사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가 누락되지 않으려면?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왜 수술 전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환자, 간호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인터뷰 분석>

결론

1. 환자는 수술 전 간호상태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성을 주의깊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사는 환자에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환자와 간호사 모두가 양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